

성과 관련된 자기보고의 타당성 검증: 암묵적 태도와 자기보고 간의 상관을 토대로*

조 환 희 강 지 윤 김 혜 진 마 주 연 황 석 현[†]
전남대학교

사회과학 영역에서 사람들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고가 흔히 사용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실제 태도를 드러내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과 같은 민감한 영역에서 자기보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행동과제로 측정된 암묵적 태도와 자기보고로 측정된 명시적 태도 사이의 상관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161명을 대상으로 성과 관련된 척도들을 각각 자기와 '일반적인 20대 대학생'에 대해 평정하게 하였다. 아울러 동일한 대상에게 암묵적 연합검사(IAT)를 실시하여 암묵적 사교적 성애를 측정하였다. 조건 간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기평가가 타인평가보다 쾌락적 성, 부도덕적 성관념, 도구적 성, 성충동, 사교적 성애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보인 반면, 성 책임감은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동일 변인을 각각 '자기'와 '타인'에 대해 평정할 때, 두 평가 간 대응되는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얻었다. 또한 IAT가 타인평가의 쾌락적 성, 사교적 성애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과 관련된 척도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이 유의미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암시하며, 민감한 주제를 자기보고로 연구할 경우에는 그 결과의 해석에 신중해야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자기보고, 사회적 바람직성, 반응왜곡, 사교적 성애, 암묵적 연합검사

* 이 논문은 2014-2015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 되었습니다.

[†] 교신저자: 황석현, 전남대학교

Tel : 062-530-2651, E-mail : hwansama@hanmail.net

행동과학에서 자료 수집을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자기보고이다. 자기보고는 저비용으로 다수의 표본을 얻을 수 있으며, 태도나 가치, 주관적 느낌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할 수 있다. 한편 자기보고는 반응왜곡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응왜곡은 정확한 자기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체계적인 경향성을 뜻하며, 그 종류로는 사회적 바람직성과 묵종 경향성이 있다(Paulhus, 2002).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은 자신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방향으로 응답하기 위해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를 왜곡하여 반응하는 경향성이며(Paulhus, 2002), 묵종 경향성(acquiescence)은 문항이나 물음의 내용과 상관없이 항상 동의하는 경향성으로 정의된다(Ferrando, Condon, & Chico, 2004).

특히 반응왜곡은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하여 도덕적이거나 민감한 주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다(Brody, 1995; DiFranceisco, McAuliffe, & Sikkema, 1998; Krumpal, 2013; Tourangeau & Yan, 2007).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반응왜곡은 개인주의 문화권의 서양국가보다 집단주의 문화권인 동양국가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나며(Dudley, McFarland, Goodman, Hunt, & Sydel, 2005; Keillor, Owens, & Pettijohn, 2001), 남성보다 여성이 이 효과에 대해 더 취약한 경향이 있다(Chung & Monroe, 2003).

Ganster, Hennessey, Luthans(1983)은 사회적 바람직성이 거짓 상관을 만들거나, 억제하거나, 조절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성과 관련된 주제는 사회적 바람직성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민감한 주제

이기 때문에 반응왜곡에 취약한 분야 중 하나이다. 이때 '성'은 생물학적 성(sex)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의 다차원적인 성을 의미한다(Hendrick & Hendrick, 1987).

국내 1995년, 2001년, 2016년의 대학생 성태도를 살펴보면, 자신이 성에 대해 개방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했으며(38.88%, 38.7%, 51.5%), 폐쇄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했다(41.77%, 31.7%, 16.1%)(송수호, 2016). 그러나 최서진(2013)의 연구는 이러한 성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보고의 반응왜곡이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서진(2013)은 미혼 남녀(M = 남성 23.6세 여성 22.5세)를 대상으로 생애 성관계 파트너 수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남성은 평균 10.3명, 여성은 평균 1.7명으로 나타났다. 성관계가 일반적으로 남녀 간 일대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남녀의 평균은 비슷해야 해야 하지만,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 성매매 실태, 참여자들의 특성 또는 남성과 여성간의 상이한 성행동 패턴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원인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으로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반응왜곡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불행하게도 국내에서는 성과 관련된 영역에서 반응왜곡을 다룬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형편이다.

한편, Alexander와 Fisher(2003)의 연구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반응왜곡으로 인해 이러한 성차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사회적 바람직성이 작용하는 정도가 다른 3가지 조건에 실험참여자를 할당한 후, 생애 성관계 파트너 수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조건1은 실험참여자가 설문을 작성 할 때 연구자가

주변에 서성거리는 노출위험조건으로 실험참여자가 인상관리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기보고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가장 큰 조건이다. 조건2는 실험참여자에게 자신의 응답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다고 인지시킨 익명조건으로 일반적인 실험상황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적 바람직성이 작용하는 조건이다. 그리고 조건3은 연구자가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여 실험참여자의 거짓 응답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한 조건으로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최소화한 조건이다. 실험결과 사회적 바람직성이 커질수록 남녀사이의 생애 성관계 파트너 수의 차이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따라서 Alexander와 Fisher(2003)의 해석을 최서진(2013)의 연구결과에 적용 시켜보면, 해당 연구에서 나타난 남녀사이의 생애 성관계 파트너 수의 차이가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자기보고의 왜곡으로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성과 관련된 자기보고가 반응왜곡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성 관련 연구들은 대다수 자기보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암묵적 연합 검사(IAT)

성과 같은 민감한 영역에서의 자기보고는 실제와 다른 태도를 응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담과 심리검사도구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안지인, 고영진, 2014). 반응왜곡을 통제할 수 있는 심리검사도구로는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는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가 있다(Greenwald, McGhee, & Schwartz, 1998). 암묵적 태도는 드러나지 않고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며, 자기보고에서의 명시적 태도와 대비된다. 여기서 명시적 태도란 자기보고

에서 응답자가 스스로 보고하는 의식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IAT에서 암묵적 태도는 제시된 특정 단어를 분류하는 과제의 반응 시간으로 측정되며, 행동 측정치이기 때문에 의식적인 통제가 어렵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IAT가 무엇을 측정하는 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Fazio(1995)는 태도란 기억 속에 있는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한 평가가 연합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IAT는 이것을 측정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IAT로 측정된 암묵적 태도와 자기보고로 측정된 명시적 태도는 동일 개념이며,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의 차이는 실험참여자가 자기보고를 통한 명시적인 반응을 통제하려 할 때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Fazio & Olson, 2003). 그러나 Greenwald와 Banaji(1995)는 IAT가 명시적인 자기보고를 통해 접근할 수 없는 무의식적인 인식을 평가하는 반면 자기보고는 의식적인 인식을 평가하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의 차이는 의식적 인식과 무의식적 인식 사이의 불일치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았다(Greenwald, Bani, Rudman, Farnham, & Nosek, 2002). 한편, 환경적 연합 모델(the environmental association model)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IAT를 통해서 측정된 값이 개인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단순히 특정 개인이 주위 환경을 통해 더 많이 노출이 된 연합쌍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Karpinski & Hilton, 2001). 이 모델의 가정에 따르면 IAT를 통해서 측정된 값은 자신에 대한 자기보고 결과보다 자신이 속한 지배적인 문화에 대한 자기보고의 결과와 더 상관이 커야한다. 하지만 Nosek와 Hansen(2008)의 연구결과, IAT는 지배적인 문화에 대해 추정하게 한 자기보고보다 자신에 대한 자기보고와 더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환경적 연합 모델의 주장을 제쳐두더라도, IAT로 측정된 값이 자신의 태도인지 혹은 인지할 수 없는 무의식적인 태도인지에 대한 논쟁은 존재하기 때문에 IAT 결과에 대한 해석과 일반화에 있어 이러한 쟁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IAT가 자기보고에 비해 타당한가에 대한 논쟁도 존재한다. Greenwald 등(2009)은 메타연구를 통해 IAT가 민감한 주제에서 자기보고보다 더 큰 예측타당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민감한 주제에서 자기보고는 쉽게 왜곡 되지만, IAT는 반응왜곡에 대해 보다 자유롭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Hofmann, Gawronski, Gschwendner, Schmitt(2005)는 IAT와 자기보고의 상관성이 주제의 민감한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메타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와 같은 결과가 사회적 바람직성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났을 수 있으며, 사회적 바람직성이 자기보고와 IAT 간 상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확정지을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국내의 성과 관련된 IAT 연구를 살펴보면, IAT는 자기보고보다 유용한 측정도구임이 지지된다. 성범죄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기보고를 통해 강간통념 정도와 성범죄 가해의도 및 경험 등을 확인한 경우,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IAT로 아동에 대한 성적 기호를 측정했을 때, 성범죄자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를 얻었다(이유선, 최준호, 오대영, 이장한, 2009). 이는 성과 관련된 민감한 영역에서는 IAT가 자기보고 보다 더 변별력이 있는 도구라는 사실을 지지한다. 또한 기존의 IAT를 개선한 BIAT(Brief Implicit Association Test)를 성범죄자와 일

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연구에서도 아동에 대한 성적 기호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한건환, 민윤기, 2017).

간접질문법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자기보고의 반응왜곡을 극복하기 위해 IAT뿐만 아니라 간접질문법(Indirect Questioning)을 활용하기도 한다(Fisher, 1993). 간접질문법은 실험참여자에게 다른 사람들의 태도를 추측하여 응답하게 하는 투사법이다(Robertson & Joselyn, 1974). 본 실험에서 사용된 문항을 예로 들면 “요즘 20대는 성관계 자체를 즐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와 같은 문항이 있다. 간접 질문법은 실험참여자에게 특정 집단의 태도를 추정하도록 요구한다. 그 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실험참여자에게 있는 경우나 그 집단이 너무 작은 경우가 아니라면, 실험참여자는 자신의 태도를 기반으로 주어지지 않는 정보를 추정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Barkoukis, Lazuras, & Tsorbatzoudis, 2015). 따라서 연구자는 간접질문법에 투사된 실험참여자의 태도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응답하는 문항이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문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험참여자는 자기 자신의 태도를 보고하고 있다고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따라서 간접질문법을 활용하면 사회적으로 민감하여 자신의 태도를 숨길 가능성이 큰 문항에서 보다 솔직한 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

Fisher(1993)는 자신의 태도를 묻는 자기보고와 타인의 태도를 추정하게 하는 간접질문법을 실험참여자에게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규범과 관련된 민감한 주제 경우에는 자기보고와 간접질문법을 통해 얻어진 응

답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민감하지 않은 주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에 대해 Fisher(1993)는 간접질문법이 자신의 태도를 기반으로 응답하기 때문에 민감하지 않은 주제에서는 자기보고와 타인평가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반면에 민감한 주제의 경우 자기보고는 왜곡된 결과가 보고되지만, 간접질문법은 자신의 태도가 투사되어 거의 왜곡되지 않은 결과가 보고되기 때문에 두 척도 간 결과의 차이가 생겨났다고 설명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재정과 관련된 행동을 자신에 대해서 응답하게 하고, 일반적인 타인에 대해서 추정하게 하였다. 그 결과 높은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값을 가진 개인일수록 자신과 타인에 대한 두 응답 사이에 유의미하게 더 큰 차이를 보였다(Kelly, Harpel, Fontes, Walters, & Murphy, 2017). 그러나 간접질문법과 행동측정치를 비교하여 체계적으로 타당성을 검증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며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성 관련 자기보고 타당성 연구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여보면 국내에서 성과 관련된 주제를 연구할 때 자기보고는 반응왜곡에 취약하므로 신뢰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IAT와 간접질문법을 통하여 성 관련 자기보고의 타당성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본 연구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응왜곡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반응왜곡을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인 묵종 경향성을 통제하였다. 묵종 경향성은 지연 디스카운팅 과제(Delay Discounting

Task; DDT)를 이용하여 통제할 수 있다(Richards, Zhang, Mitchell, & Wit, 1999). DDT는 지금 주어지는 작은 보상과 지연기간 후 주어지는 더 큰 보상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질문을 반복하는 과제이다. 이때 실험참여자가 보상의 크기에 관계없이 지금 주어지는 보상만을 선택하거나 지연기간에 상관없이 더 큰 보상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극단값의 결과를 얻게 된다. 극단값은 내용과 상관없이 한쪽만을 선택하는 묵종 경향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DDT에서 극단값을 가진 참여자를 제외함으로써 묵종 경향성에 의한 반응왜곡을 통제하였다. 이를 통해 성과 관련된 자기보고에서 묵종경향성에 의한 반응왜곡의 영향을 배제하고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반응왜곡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IAT를 통해서 암묵적 사교적 성애(sociosexuality)를 측정하였다. 사교적 성애는 책임지지 않는 성적인 관계에 가담하려는 개인 간의 의지 차이로 정의된다(Kinsey, Pomeroy, Martin, & Sloan, 1948). 높은 사교적 성애는 보다 많은 파트너와 무분별한 성교 전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낮은 사교적 성애는 오직 한명의 파트너와 성교를 하려는 전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Simpson & Gangestad, 1991). 높은 사교적 성애를 가진 개인은 부정적인 평판을 받기 쉽다. 사교적 성애에 대한 물음은 사회적 바람직성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되며, 자기보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성 관련 자기보고 연구의 변인으로 설정하고, Penke, Eichstaedt, Asendorpf(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교적 성애 IAT를 구성하였다. Penke 등(2006) 연구에서는 사교적 성애 IAT와 사교적 성애 자기보고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세 번째로, IAT와 자기보고를 비교하여 반응왜곡을 연구했던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두고자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간접질문법을 연구에 추가하였다. 동일척도에 대한 자기보고와 간접질문법 간 비교를 통해 반응왜곡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반응왜곡의 영향을 덜 받는 두 측정도구인 IAT와 간접질문법의 상관을 관찰하여 자기보고의 타당성을 더 정교하게 연구 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Penke 등 (2006) 연구에서 사용된 사교적 성애 IAT를 사용하였고, 선행 연구의 사교적 성애 자기보고 척도를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교적 성애 척도가 국내에서 타당화 된 척도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에서 타당화 된 성 관련 척도인 다차원적 성태도 척도(Hendrick & Hendrick, 1987)와 성충동척도(이희영, 2007)를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척도의 동일한 문항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자기평가라고 명명한 자신에 대한 평정을 진행하고, 타인평가라고 명명한 '일반적인 20대 대학생'에 대한 평정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자기평가와 타인평가의 반응패턴을 비교해보았고, 타인평가에 자신의 태도를 투사한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자기평가와 IAT, 타인평가와 IAT의 상관을 각각 비교하여 자기보고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심리학 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 중 모국어가 한국어인 만 19세 이

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험 참여에 동의한 161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참여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50명(31%), 여성 111명(68%)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남성 21.04세($SD=2.15$), 여성 20.02세($SD=3.65$)이었다.

연구절차

실험참여자는 제시된 실험 일정 중 원하는 일시의 실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실험실에 도착한 실험참여자는 원하는 자리에 앉아 연구에 대한 소개와 설명을 들은 후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모든 실험참여자의 동의서 작성이 확인되면, 참여자는 진행자의 지시에 따라 알파벳과 숫자를 조합한 코드를 만들게 된다. 이 코드는 익명성을 위한 것으로, 참여자는 각 과제 및 설문조사에 동일한 코드를 입력하게 된다.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실험참여자는 컴퓨터로 두 개의 행동과제(DDT, IAT)와 세 개의 자기보고식 척도(다차원적 성태도 척도, 성충동 척도, 사교적 성애 척도)를 수행하였다. 먼저 DDT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 B조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제라고 간략히 소개하였다. 다만 가상의 상황이지만 가급적 본인에게 있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진행자는 참여자의 이해를 확인한 후 DDT를 수행하게 하였다. 실험보조자가 모든 참여자의 DDT 수행 완료를 확인하면, 진행자는 타인평가 및 자기평가를 시행하게 하였다. 자기평가는 타인평가 이후 바로 응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타인평가는 '일반적인 20대 대학생'의 다차원적 성태도 척도, '일반적인 20대 대학생'의 성충동 척도, '일반적인 20대 대학생'의 사교적 성애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평가는 타인평가와 같은 항목의 설문 내용을 '본인'에 대해서 응답하게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타인평가 및 자기평가의 서두에 명확한 안내문을 실었다. 실험보조자가 모든 참여자의 타인평가 및 자기평가 응답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면 진행자가 IAT를 설명하였다. 진행자는 참여자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본 연구와 관련 없는 예시('사과는 동물과 과일 범주 중에 과일에 해당합니다.')를 칠판에 그려진 그림을 통해 설명하였다. 참여자의 이해를 확인한 후 IAT 과제를 시행하게 하였으며, 실험보조자가 모든 참여자의 IAT 과제 완료를 확인하면, 진행자가 실험 종료를 알렸다. 총 소요 시간은 약 40분이었다.

측정도구

사교적 성애 척도

본 연구에서는 Bailey, Kirk, Zhu, Dunne, and Martin(2000)의 사교적 성애 척도(Sociosexuality Scale)을 연구진이 번안하여 사교적 성애를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Simpson과 Gangestad(1991)가 개발한 사교적 성지향 척도(Sociosexuality Orientation Inventory; SOI)의 7문항과 Eysenck(1976)가 만든 성행동 척도의 13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15번 문항은 "예"또는 "아니오"로 측정하였으며 16-20번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높은 점수는 높은 사교적 성애, 즉 보다 많은 파트너와 책임지지 않는 성적인 관계에 가담하려는 의지가 높음을 뜻한다. SOI는 48개국의 비교 연구를 통해 범문화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되었다(Schmitt, 2005). 사교적 성애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 .69$ 로 나타났다.

다차원적 성태도 척도

다차원적 성태도 척도(Hendrick & Hendrick, 1987)를 국내 실정에 맞도록 타당화한 최인숙(2009)의 척도를 사용하여 성태도를 측정하였다. 총 23문항의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요인으로는 쾌락적 성 14문항, 부도덕적 성관념 4문항, 성 책임감 2문항, 도구적 성 3문항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쾌락적 성, 부도덕적 성관념, 성 책임감, 도구적 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실험에서 다차원적 성태도 신뢰도 계수는 자기평가 Cronbach $\alpha = .887$, 타인평가 Cronbach $\alpha = .867$ 로 나타났다.

성충동 척도

이희영(2007)이 개발한 성충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8문항의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충동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실험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자기평가 Cronbach $\alpha = .883$, 타인평가 Cronbach $\alpha = .901$ 로 나타났다.

지연 디스카운팅 과제 (Delay Discounting Task; DDT)

본 연구에서는 목중 경향성을 통제하기 위해 Richards 등(1999)이 사용한 지연 디스카운팅 과제(Delay Discounting Task; DDT)를 Millisecond 사의 Inquisit을 사용하여 편집 후 사용하였다. 실험에서는 컴퓨터로 과제를 제시한 후 마우스로 응답하게 하였다. 실험은 약 5분이 소요되었다.

DDT는 지연기간 후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보상금액과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적은 보상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는 질문을 반복한다. 이 과정을 통해 특정한 지연기간 후 주어지는 일정한 보상과 상대적 가치가 같은 현재의 보

상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0일 후의 10만원과 현재의 6만원 중 하나를 선택하는 질문이 주어진다. 이때 10만원이라는 금액은 일정하게 제시되며, 현재 주어지는 금액은 0~10만원 사이의 금액을 임의로 제시한다. 실험참여자가 선택지를 선택하면, 참여자의 선택을 바탕으로 5천원 단위로 금액을 변화시켜가며 10만원과 상대적인 가치가 같은 금액의 범위를 좁혀간다. 몇 번의 선택이 이루어지면 범위가 좁아지고 30일 후의 10만원과 상대적인 가치가 같아지는 현재 보상액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이때 10만원을 최대 보상액이라고 하고, 30일 후의 10만원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현재의 보상액, 즉 지연기간에 대해 최대 보상액이 현재 지니는 상대적인 가치를 무차별점(indifference point)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의 지연기간은 Richards 등(1999)이 사용한 지연기간을 참고하여 1일, 2일, 30일, 180일, 365일로 설정하였다.

DDT의 결과는 AUC값으로 수치화 할 수 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각의 지연기간을 x-축, 무차별점을 y-축으로 설정한다. 값을 표준화하기 위해 x-축의 가장 긴 지연기간과 y-축의 최대 보상액을 모두 1로 하고 다른 값을 비율에 맞추어 변환한다. 마지막으로 지연 기간에 대해서 얻어진 무차별점을 연결

한 직선의 아래면적을 계산하면 Area Under the Curve(AUC)값이 얻어진다(Myerson, Green, & Warusawitharana, 2001). AUC값은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0과 1사이의 값으로 주어진다. 보통 AUC 값은 충동성을 측정하는데 활용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목중 경향성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따라서 AUC 값의 극단치인 $AUC > 0.9$ 또는 $AUC < 0.1$ 인 사람은 일반적인 경향성에서 심하게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비일관되고 비전형적인 답변 양상을 보인 사람도 제외하였다.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암묵적 연합 검사(Greenwald et al, 1998)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illisecond 사의 Inquisit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과제를 제작하였으며, 개인용 컴퓨터로 과제를 제시한 후 키보드로 응답하게 하였다.

IAT는 심리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을 연합시키려 할 때 오반응이 일어나거나 반응 시간이 느려지는 현상을 이용한다. 실험이 시작되면 실험참여자들은 실험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화면 중앙에 무작위로 제시된 단어를 키보드를 이용하여 오른쪽 또는 왼쪽 범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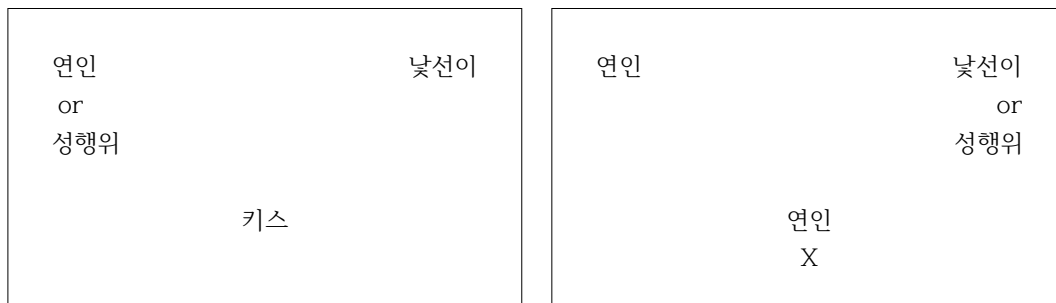


그림 1. 암묵적 연합검사 과제 화면 예시(좌: 상응과제, 우상: 비상응과제)

표 1. 사교적 성애 암묵적 연합검사 구성

블록(block)	과제	좌(E키)	우(I키)
1	예비시행	연인	낮선이
2	상응과제 연습시행	연인 or 성행위	낮선이
3	상응과제 본시행	연인 or 성행위	낮선이
4	비상응과제 연습시행	연인	낮선이 or 성행위
5	비상응과제 본시행	연인	낮선이 or 성행위

분류하는 과제를 반복한다(그림 1 참조). 예를 들면, 화면 중앙에 성행위에 해당하는 단어인 섹스가 나오고 성행위라는 범주가 오른쪽에 표시된다면 키보드를 이용하여 오른쪽으로 단어를 보내야 한다. 만약 올바르게 분류하지 않으면 화면 중앙에 'X' 표시가 나타나고, 다시 옳은 방향으로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 단어가 제시된다. 이때 이 반응은 오반응으로 분류되어 반응시간과 함께 기록된다.

일반적인 IAT의 경우 대응되는 개념이 존재해야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쾌락적인 성태도에 대한 대응 쌍이 모호하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Penke 등(2006)이 고안한 실험 구성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표 1 참조). 실험에서는 두 가지 다른 조건의 분류과제가 주어진다. 첫 번째 조건은 성행위와 연인 범주를 좌측으로 낮선이 범주는 우측으로, 두 번째 조건은 성행위와 낮선이 범주를 우측으로 연인 범주는 좌측으로 분류하는 과제이다. 여기서 성행위 범주를 표적 자극, 낮선이 범주와 애인 범주를 속성 자극이라고 한다. 본 실험에서 제시된 단어는 표 2

와 같다.

전체 과제는 총 200시행으로, 총 5블록으로 구성되며 각 블록은 40개의 시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블록1은 예비시행으로, 표적 자극 없이 속성 자극을 좌우로 분류하는 작업에 실험 참여자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하는 블록이다. 그리고 블록2는 상응과제 연습시행으로, 성행위와 연인 범주를 같은 방향으로 분류하는 과제의 연습시행이다. 블록3은

표 2. 사교적 성애 암묵적 연합검사 자극 단어

표적 단어	속성 단어	
	연인 범주	낮선이 범주
성행위 범주	연인 범주	낮선이 범주
키스	연인의	낮선이의
허그	연인에게	낮선이를
안기	연인이	낮선이
손잡기	연인을	낮선에게
성관계	연인과	낮선이가
스킨쉽	연인의	낮선이와
섹스	연인은	낮선은
뽀뽀	연인	낮선이를

상응과제 본시행이며, 블록4는 비상응과제 연습시행으로, 성행위와 낯선이 범주를 같은 방향으로 분류하는 과제의 연습시행이다. 마지막으로 블록5는 비상응과제 본시행이다. 본 실험에서 성행위와 연인은 보편적으로 상응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며 상응과제라고 명명하였으며, 성행위와 낯선은 보편적으로 상응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비상응과제라고 명명하였다. 예비시행인 블록 1과 각 블록의 첫 시행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IAT에서 중요한 측정치는 과제를 분류하는 시간이다. 여기서는 상응과제와 비상응과제 간의 단어 분류 시간 차이를 두 과제 반응 시간의 표준편차로 나누어서 암묵적인 사교적 성애를 d 값으로 수치화 하였다(Greenwald, Nosek, & Banaji, 2003).

d 값은 낯선이와 성행위를 같은 방향으로 분류하는 시행(비상응과제)의 평균속도와 연인과 성행위를 같은 방향으로 분류하는 시행(상응과제)의 평균속도의 차이에 따라서 정해진다. d 값이 낮을수록 비상응과제가 상응과제보다 분류 시간이 적게 걸리고 분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성행위를 연인보다 낯선이에 더 잘 연합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실험에서는 과제별로 각각 연습시행과 본시행을 시행했기 때문에 d 값 또한 연습시행과 본시행의 값을 따로 구할 수 있으며, 연습시행 d 값과 본시행 d 값의 평균값을 표준 d 값이라고 하였다.

자료분석방법

‘일반적인 20대 대학생’ 문항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전체 161명 중 20대가 아닌 10명(6.21%)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DDT의

AUC 값이 일반적인 경향성에서 심하게 벗어나거나(AUC>0.9 또는 AUC<0.1) 비일관되고 비전형적인 답변 양상을 보인 48명(29.81%)을 제거하였다. 제거 하고 남은 실험참여자를 대상으로 IAT에서 오반응이 10%를 초과한 사람은 불성실하게 반응한 것으로 판단하고 5명(3.11%)을 제거하였다. 따라서 98명(남 30, 여 68)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제거된 참여자의 성별은 남자 20명, 여자 43명이었다. 먼저 타인평가와 자기평가의 총점을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성태도 및 사교적 성애와 IAT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였다. 기준에 맞지 않는 참여자를 제외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자기평가와 타인평가의 t 검증 및 상관은 동일하게 나왔지만, 제외하기 전 IAT와 타인평가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결 과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행동과제의 기술통계는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우선, DDT의 평균 AUC값은 0.54($SD=0.35$)이었다. 그리고 IAT의 평균 d 값은 0.53

표 3. 행동과제의 기술통계

행동과제		<i>M</i>	<i>SD</i>
DDT	AUC	0.54	0.35
	d 값	0.53	0.24
IAT	분류시간(ms)	622.25	178.57
	정확도(%)	94.26	2.53

$n=98$

($SD=0.24$)이었다. IAT의 평균 과제 분류시간은 $622.25ms$ ($SD=0.24ms$)이었으며 IAT의 평균 정확도는 94.26% ($SD=2.53\%$)이었다.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기평가 내에서의 성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은 다음과 같다(표 4). 자기평가의 쾌락적 성은 부도덕적 성관념, 도구적 성, 성충동, 사교적 성애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부도덕적 성관념은 성 책임감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도구적 성과 성충동, 사교적 성애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도구적 성은 성충동, 사교적 성애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성충동은 사교적 성애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타인평가 내에서의 성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은 다음과 같다(표 4). 타인평가의 쾌락적 성은 부도덕적 성관념,

도구적 성, 성충동, 사교적 성애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부도덕적 성관념은 성 책임감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도구적 성과 성충동, 사교적 성애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도구적 성은 성충동, 사교적 성애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성충동은 사교적 성애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자기보고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를 보았을 때, 자기평가와 타인평가 내의 성 관련 변인들 간 관찰되는 유의한 상관 패턴이 일치하였다. 결과에서 살펴보면 자기평가와 타인평가 모두 성 책임감은 부도덕적 성관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왔지만 나머지 변인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또한 부도덕적 성관념과 성 책임감 사이에서만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그 외에 관찰된 변인들 간 유의한 상관은 모두 정적 상관이었다.

자기평가와 타인평가간의 상관분석 결과(표

표 4. 자기보고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측정변인		1	2	3	4	5	6
타인평가	1. 쾌락적 성	-					
	2. 부도덕적 성관념	.47**	-				
	3. 성 책임감	.03	-.29**	-			
	4. 도구적 성	.70**	.61**	-.18	-		
	5. 성충동	.52**	.58**	-.03	.55**	-	
	6. 사교적 성애	.57**	.53**	-.04	.60**	.53**	-
자기평가	1. 쾌락적 성	-					
	2. 부도덕적 성관념	.56**	-				
	3. 성 책임감	-.04	-.27**	-			
	4. 도구적 성	.61**	.40**	-.02	-		
	5. 성충동	.62**	.59**	-.14	.32**	-	
	6. 사교적 성애	.69**	.54**	.08	.59**	.43**	-

$n=98$ ** $p<.01$, * $p<.05$

표 5. 자기평가와 타인평가 간 상관분석 결과

	자기평가					
	쾌락적 성	부도덕적 성관념	성 책임감	도구적 성	성충동	사교적 성애
타인평가						
쾌락적 성	.57**	.47**	-.05	.41**	.47**	.43**
부도덕적 성관념	.26**	.51**	-.12	.22*	.45**	.44**
성 책임감	.06	-.12	.33**	.04	-.10	.15
도구적 성	.34**	.23*	.01	.40**	.29**	.34**
성충동	.40**	.49**	-.02	.30**	.74**	.45**
사교적 성애	.44**	.31**	.01	.41**	.33**	.55**

n=98 **p<.01, *p<.05

5), 자기평가의 성 관련 변인들은 타인평가의 동일한 변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자기평가의 특정 변인이 타인평가의 변인들과 맺는 상관과 타인평가의 동일 변인이 자기평가의 변인들과 맺는 상관의 패턴이 일치했다. 결과에서 예를 들면 자기평가의 성 책임감을 제외한 성 관련 변인들과 타인평가의 성 관련 변인들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 타인평가 역시 성 책임감을 제외한 성 관련 변인들과 자기평가의 성 관련 변인들 간

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자기평가와 타인평가의 t검증

자기평가와 타인평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기평가와 타인평가의 모든 성 관련 변인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표 6). 자기평가와 타인평가의 쾌락적 성($t(97)=-9.60, p<.001$), 부도덕적 성관념($t(97)=-6.25, p<.001$), 도구적 성($t(97)=-9.23, p<.001$), 성충동($t(97)=-12.70, p<$

표 6. 자기평가와 타인평가의 t검증

	자기평가		타인평가		t
	M	SD	M	SD	
자기보고					
쾌락적 성	38.56	9.59	46.54	7.73	-9.60***
부도덕적 성관념	4.98	1.48	6.30	2.43	-6.25***
성 책임감	9.40	0.92	8.36	1.59	6.64***
도구적 성	5.71	2.04	7.83	2.08	-9.23***
성충동	16.01	6.12	21.79	6.25	-12.70***
사교적 성애	27.05	5.22	34.48	5.38	-14.63***

n=98 ***p<.001

.001), 사교적 성애($\alpha 97$)=-14.63, $p < .001$)에서 자기평가가 타인평가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자신이 타인보다 쾌락적 성, 부도덕적 성관념, 도구적 성, 성충동 및 사교적 성애가 낮다고 보고한 것을 의미한다. 자기평가와 타인평가의 성 책임감($\alpha 97$)=6.64, $p < .001$)은 자기평가가 타인평가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자신이 타인보다 높은 성 책임감을 가졌다고 보고한 것을 의미한다.

IAT와 성 관련 변인 간의 상관 분석

IAT와 자기평가의 성 관련 변인은 상관이 없었다(표 7). IAT와 타인평가에서 전체 집단은 쾌락적 성($r = -.22$, $p < .05$)과 사교적 성애($r = -.26$, $p < .01$)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IAT를 통해 측정된 암묵적인 태도가 더 쾌락적일수록 타인평가를 통해 측정된 쾌락적 성태도와 사교적 성애가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성행위를 낯선이에게 연합시키는 정도가 클수록 타인평가에서 쾌락적인 성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IAT와 성 관련 변인 간의 상관분석

	IAT	
	자기평가	타인평가
쾌락적 성	-.01	-.22*
부도덕적 성관념	.04	-.10
성 책임감	-.08	-.14
도구적 성	.07	-.09
성충동	-.01	.05
사교적 성애	-.06	-.26**

$n=98$ *** $p < .001$, ** $p < .01$, * $p < .05$

논 의

국내 사회과학영역에서 직접적인 관찰이나 측정이 어려운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연구의 대부분은 주로 자기보고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방법만을 채택할 경우 얻어지는 자료가 사회적 바람직성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성과 관련된 자기보고에서 반응왜곡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DDT, 타인평가 및 자기평가, IAT를 실시하고 각 결과를 비교하여 민감한 주제에서 발생하는 반응왜곡과 자기보고의 타당성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성과 관련된 자기보고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시사되었다. 세부적인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자기평가와 타인평가의 상관관계 패턴이 유의미하게 동일했다. 동일 변인을 각각 자기평가와 타인평가로 실시한 결과를 상관 분석했을 때, 두 평가 간 대응되는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자기평가 내의 변인들 간 유의미한 상관 패턴과 타인평가 내의 변인들 간 유의미한 상관 패턴이 일치했다. 또한 자기평가의 특정 변인이 타인평가의 변인들과 맺는 상관과 타인평가의 동일 변인이 자기평가의 변인들과 맺는 상관의 패턴이 같았다.

만약 단순히 타인평가가 자신과 독립된 일 반적인 20대의 태도를 평정한 것이라면 이와 같이 두 평가 간 긴밀한 상관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즉 타인평가는 자신의 태도에 근거하여 평정하였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는 간접질문법을 활용한 자기보고 시 겉으로는 실험참여자가 제3자의 태도를 평정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태도를 투사한다는 Fisher(1993)의 주장을 지지한다.

둘째로 타인평가와 자기평가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평가의 성 책임감은 유의미하게 높은 반면에 다른 성 관련 변인은 유의하게 낮았다. 즉 자신은 일반적인 20대보다 성적으로 더 높은 책임감을 지녔지만 덜 쾌락적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이는 자신을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왜곡하거나 혹은 타인을 자신보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왜곡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지만 Fisher(1993)와 Fisher와 Tellis(1998)의 결과들은 본 실험의 타인평가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왜곡되었다기 보다는 자기평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과가 왜곡되었을 수 있음을 지지해준다. Fisher(1993)는 민감한 주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타인평가는 보다 자유롭지만 자기평가는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Fisher와 Tellis(1998)는 타인평가에 비해서 자기평가에서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묘사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세 번째, 본 연구에서 성과 관련된 자기보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IAT 값을 각각 자기평가 및 타인평가와 상관 분석 후 두 값을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IAT로 측정된 암묵적인 사교적 성애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쪽은 자기평가가 아닌 타인평가였다. 실험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타인평가의 쾌락적 성과 사교적 성애가 각각 IAT 값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IAT와 자기평가 모두 사교적 성애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두 측정치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자기평가와 IAT 값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두 측정치간 유의미한 상관이 억제

될 정도의 반응왜곡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 근거를 살펴보면 먼저, 자기평가로 측정된 성과 관련된 변인은 민감한 주제이며 특히 사회적 바람직성이 크다고 알려진 한국(Kim & Kim, 2016)에서 이루어진 연구기 때문에 반응왜곡에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본 실험의 결과를 보면 자기평가는 타인평가에 비해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적 바람직성이 본 실험의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Dovidio(1992)는 민감한 주제에서 참여자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의 태도를 숨기기 때문에 자기보고와 IAT 사이의 불일치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IAT 값은 민감하지 않은 주제의 자기보고 결과를 잘 예측해주지만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근거들은 본 연구에서 자기평가와 IAT 값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오지 않은 것은 자기평가의 결과가 왜곡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지지해준다. 특히 본 연구의 실험과정이 철저하게 익명을 보장했음에도 자기평가의 결과가 왜곡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IAT와 자기보고의 상관을 구하여 자기보고의 타당성을 검증한 기존 연구에서는 자기평가만을 사용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만약 반응왜곡을 통제하지 않은 자기보고는 IAT 값과 상관이 나오지 않지만 반응왜곡을 통제한 자기보고는 IAT 값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추가적으로 보여준다면, 민감한 주제의 자기평가는 반응왜곡에 의해서 왜곡되어 실제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지하는 더욱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응왜곡을 통제한 타인평가를 추가하여

IAT와 상관을 분석하였고, 유의미한 상관을 얻었다. 또한 본 연구는 타인평가와 자기평가가 모두 자신의 태도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타인평가의 경우 반응왜곡에서 더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타인평가가 IAT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는 것은 민감한 주제의 경우에서 만큼은 타인평가가 자기평가보다 솔직한 태도를 드러내도록 해주며, 자기평가를 통해서 태도를 측정하는 것은 유의미한 상관을 억제할 만큼 반응왜곡에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평가가 모든 경우에서 자신의 태도를 반영한다는 뜻은 아니며, 타인평가 역시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다원적 무지(pluralistic ignorance)와 허위적 합의(false consensus)와 같은 상황에서는 왜곡될 수 있다(Katz & Allport, 1931). 그러나 본 실험은 다원적 무지나 허위적 합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나누어 IAT와 타인평가의 쾌락적 성 및 사교적 성에 간 상관을 보았다. 그 결과 여성 집단과 전체 집단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여성의 수가 남성의 수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았으며, 이러한 표본의 성별 불균형에 의해 전체 집단에서 상관이 나왔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성과 관련된 영역은 남성의 성행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반면에 여성의 성행동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는 성적이중기준(sexual double standard)과 같은 사회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영역이다(Marks & Fraley, 2005). 따라서 성과 관련된 영역의 자기보고는 남녀 간의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본 연구 결과를 남성 집단에 일반화

하기 어렵다.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남성 집단의 비율을 높이고 성별을 고려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연구 대상의 평균 연령은 남성 21.04세, 여성 20.02세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태도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전경숙, 이효영, 이선자, 2004). 따라서 본 연구 대상의 연령이 다소 제한적이므로 실험의 결과를 다른 연령 집단에 적용할 경우에는 해석에 신중해야한다. 또한 본 연구는 성과 관련된 주제가 갖는 반응왜곡의 취약성에 대해서 다루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성과 관련된 변인뿐만 아니라 종교, 정치성향, 범죄, 인권과 같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다룰 것을 제안한다.

세 번째로 성과 관련된 영역에서 반응왜곡 문제를 문화적인 차원에서 파악해보는 연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과 관련된 주제로 자기평가와 IAT의 상관을 비교했던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도 본 실험과 동일하게 자기평가와 유의미한 상관이 나오지 않았다(이유선, 2009). 반면에 서양의 선행연구에서는 자기평가와 IAT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Penke et al, 2006). 이러한 선행연구의 상반된 결과는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반응왜곡에서 기인되었을 수 있다. 또한 국가 간 성태도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쾌락적인 성태도와 관련된 점수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보인다(Schmitt, D. P, 2005). 또 집단주의 문화권의 동양은 개인주의 문화권의 서양보다 사회적 바람직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연구가 존재한다(Dudley et al, 2005; Keillor et al, 2001). 따라서 성과 관련된 주제

의 반응왜곡 문제가 문화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발현 되는지 연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실험절차에서 균형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순서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 이 연구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순서의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한 상대균형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실험에서는 일부 척도와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IAT와 사교적 성애 자기보고 척도의 경우 추후연구에서는 사용된 범주나 단어에 대한 타당화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평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한 반응왜곡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사회적 바람직성의 개인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다. IAT와 자기보고간의 상관에 대한 메타 연구 결과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하지 않았다(Hofmann et al, 2005).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Paulhus, 1998)를 포함시켜 이러한 사회적 바람직성의 개인 차에 따라 자기평가와 타인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찰하고, 이를 통해 자기보고의 대안으로서의 타인평가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성과 관련된 자기보고의 타당성을 검증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성과 관련된 민감한 영역에서 자기평가는 반응왜곡에 취약하다고 주장하였는데, 더 강력한 근거를 얻기 위해 민감하지 않은 주제에 대해 동일하게 IAT와 타인평가, 자기평가를 실시하여 민감한 주제에 대한 결과와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민감한 주제에서의 반응왜곡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민

감한 주제를 다루는 현장의 근무자들에게 해석에 있어서 신중해야한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또한 현장에서 보완적인 평가도구에 대한 탐색과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간접질문법과 IAT를 포함한 다양한 도구를 검증하여 가장 타당하고 신뢰로운 도구를 찾는 작업은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한 연구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하게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 송수호 (2016). 대학생의 성태도와 성행동: 1995년, 2001년, 2016년 비교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지인, 고영진 (2014). 성인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과 애착이 이성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3), 233-251.
- 이유선, 최준호, 오대영, 이장한 (2009). 성범죄자의 외현적 및 암묵적 태도 간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3), 709-721.
- 이희영 (2007). 한·중·일 청소년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 및 성교육 비교분석.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경숙, 이효영, 이선자 (2004). 대학생의 성지식, 태도, 행동실태 및 성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1(1), 45-68.
- 최서진 (2013). 가상적인 인물의 성행동에 대한 남녀의 지각 차이.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숙 (2009). Hendrick 다차원적 성태도 척

- 도의 타당화.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한건환, 민윤기 (2017). 일반인과 성범죄자의 BIAT 반응특성비교. *사회과학연구*, 28(2), 155-171.
- Alexander, M. G., & Fisher, T. D. (2003). Truth and consequences: Using the bogus pipeline to examine sex differences in self reported sexuality. *Journal of Sex Research*, 40(1), 27-35.
- Barkoukis, V., Lazuras, L., & Tsorbatzoudis, H. (2015). *The psychology of doping in sport*. New York: Routledge.
- Bailey, J. M., Kirk, K. M., Zhu, G., Dunne, M. P., & Martin, N. G. (2000). Do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osexuality represent genetic or environmentally contingent strategies? Evidence from the Australian twin regist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3), 537-545.
- Banse, R., Seise, J., & Zerbes, N. (2001). Implicit attitudes towards homosexuality: Reliability, validity, and controllability of the IAT. *Zeitschrift für Experimentelle Psychologie*, 48(2), 145-160.
- Brody, S. (1995). Patients misrepresenting their risk factors for AIDS. *International Journal of STD & AIDS*, 6(6), 392-398.
- Chung, J., & Monroe, G. S. (2003). Exploring social desirability bias. *Journal of Business Ethics*, 44(4), 291-302.
- DiFranceisco, W., McAuliffe, T. L., & Sikkema, K. J. (1998). Influences of survey instrument format and social desirability on the reliability of self-reported high risk sexual behavior. *AIDS and Behavior*, 2(4), 329-337.
- Dovidio, J. F., & Fazio, R. H. (1992). New technologies for the direct and indirect assessment of attitudes. In J. M. Tanur (Ed.), *Questions about questions: Inquiries into the cognitive bases of surveys* (pp. 204-237).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Dudley, N. M., McFarland, L. A., Goodman, S. A., Hunt, S. T., & Sydel, E. J. (2005). Racial differences in socially desirable responding in selection contexts: Magnitude and consequ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5(1), 50-64.
- Eysenck, H. J. (1976). *Sex and personality*. London: Open Books.
- Fazio, R. H. (1995). Attitudes as object-evaluation associations: Determinants, consequences, and correlates of attitude accessibility. In R. E. Petty & J. A. Krosnick (Eds.), *Attitude strength: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pp. 247-282). Hillsdale, NJ: Erlbaum.
- Fazio, R. H., & Olson, M. A. (2003). Implicit measures in social cognition research: Their meaning and us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4, 297-327.
- Ferrando, P. J., Condon, L., & Chico, E. (2004). The convergent validity of acquiescence: an empirical study relating balanced scales and separate acquiescence sca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7(7), 1331-1340.
- Fisher, R. J. (1993). Social desirability bias and the validity of indirect question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0(2), 303-315.
- Fisher, R. J., & Tellis, G. J. (1998). Removing social desirability bias with indirect questioning: Is the cure worse than the

- disease?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5(25), 563-567.
- Ganster, D. C., Hennessey, H. W., & Luthans, F. (1983). Social desirability response effects: Three alternative model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2), 321-331.
- Greenwald, A. G., Banaji, M. R., Rudman, L. A., Farnham, S. D., Nosek, B. A., & Mellott, D. S. (2002). A unified theory of implicit attitudes, stereotypes, self-esteem, and self-concept. *Psychological Review*, 109(1), 3-25.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6), 1464-1480.
- Greenwald, A. G., Nosek, B. A., & Banaji, M. R. (2003).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 An improved scoring algorith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197-216.
- Greenwald, A. G., Poehlman, T. A., Uhlmann, E. L., & Banaji, M. R. (2009).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II. Meta-analysis of predictive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1), 17-41.
- Hendrick, S., & Hendrick, C. (1987). Multidimensionality of sexual attitudes. *Journal of Sex Research*, 23(4), 502-526.
- Hendrick, S., Hendrick, C., Slapion-Foote, M. J., & Foote, F. H. (1985). Gender differences in sexu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6), 1630-1642.
- Hofmann, W., Gawronski, B., Gschwendner, T., Le, H., & Schmitt, M. (2005). A meta-analysis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and explicit self-report measur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10), 1369-1385.
- Karpinski, A., & Hilton, J. L. (2001). Attitudes and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5), 774-788.
- Katz, D., & Allport, F. H. (1931). *Students' attitudes*. Syracuse, NY: Craftsman Press.
- Keillor, B., Owens, D., & Pettijohn, C. (2001). A cross-cultural/cross-national study of influencing factors and socially desirable response biases. *International Journal of Market Research*, 43(1), 63-84.
- Kelly, N., Harpel, T., Fontes, A., Walters, C., & Murphy, J. (2017). An Examination of Social Desirability Bias in Measures of College Students' Financial Behavior. *College Student Journal*, 51(1), 115-128.
- Kim, S. H., & Kim, S. (2016). National Culture and Social Desirability Bias in Measuring Public Service Motivation. *Administration & Society*, 48(4), 444-476.
- Kinsey, A. C., Pomeroy, W. B., Martin, C. E., & Sloan, S. (1948).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male*. Philadelphia: Saunders.
- Krumpal, I. (2013). Determinants of social desirability bias in sensitive surveys: A literature review. *Quality & Quantity*, 47(4), 2025-2047.
- Madden, G. J., Petry, N. M., Badger, G. J., & Bickel, W. K. (1997). Impulsive and self-control choices in opioid-dependent patients and non-drug-using control patients: Drug and monetary rewards. *Experimental and*

- Clinical Psychopharmacology*, 5(3), 256-262.
- Marks, M. J., & Fraley, R. C. (2005). The Sexual Double Standard: Fact or Fiction? *Sex Roles: A Journal of Research*, 52(3-4), 175-186.
- Nosek, B. A., & Hansen, J. J. (2008). The associations in our heads belong to us: Searching for attitudes and knowledge in implicit evaluation. *Cognition & Emotion*, 22(4), 553-594.
- Paulhus, D. L. (2002). Socially desirable responding: The evolution of a construct. In H. I. Braun, D. N. Jackson, & D. E. Wiley (Eds.), *The role of constructs in psychological and educational measurement* (pp.49 - 69). Mahwah, NJ: Erlbaum.
- Paulhus, D. L., & John, O. P. (1998). Egoistic and moralistic biases in self perception: The interplay of self deceptive styles with basic traits and motives. *Journal of Personality*, 66(6), 1025-1060.
- Penke, L., Eichstaedt, J., & Asendorpf, J. B. (2006). Single-attribute implicit association tests (SA-IAT) for the assessment of unipolar constructs. *Experimental Psychology*, 53(4), 283-291.
- Reynolds, B., Richards, J. B., Horn, K., & Karraker, K. (2004). Delay discounting and probability discounting as related to cigarette smoking status in adults. *Behavioural Processes*, 65(1), 35-42.
- Richards, J. B., Zhang, L., Mitchell, S. H., & Wit, H. (1999). Delay or probability discounting in a model of impulsive behavior: effect of alcohol. *Journal of the Experimental Analysis of Behavior*, 71(2), 121-143.
- Robertson, D. H., & Joselyn, R. W. (1974). Projective techniques in research.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14, 27-31.
- Schmitt, D. P. (2005). Sociosexuality from Argentina to Zimbabwe: A 48-nation study of sex, culture, and strategies of human mating.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8(2), 247-275.
- Simpson, J. A., & Gangestad, S. W. (1991).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osexuality: evidence for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6), 870-883.
- Slabbinck, H., & Kenhove, P. V. (2010). Social desirability and indirect questioning: New insights from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and the 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37, 904-905.
- Tourangeau, R., & Yan, T. (2007). Sensitive questions in surveys. *Psychological Bulletin*, 133(5), 859-883.
- 1차원고접수 : 2018. 10. 01.
2차원고접수 : 2019. 01. 28.
3차원고접수 : 2019. 06. 19.
최종게재결정 : 2019. 06. 24.

Verification of validity of self-report related to sexual attitudes: Based on correlation between implicit attitudes and self-report

Hwanhui Cho Jiyun Kang Hyejin Kim Juyeon Ma Samuel Sukhyun Hwa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elf-report is often used to measure people's attitudes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 However, people often do not reveal their true attitud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validity of self-report related to sexual attitudes based on correlation between implicit attitudes and self-report. For this purpose, 161 college students completed measures related to sexual attitudes (i.e. voluptuous sex, immoral sexual idea) about themselves and general college students. In add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IAT) was conducted to measure their implicit sociosexuality. The results of the pairwise *t*-test showed that subjects rated themselves as having significantly lower voluptuous sex, immoral sexual idea, instrumental sex, sexual impulsivity, and sociosexuality, but higher sexual responsibility, compared with others. Also, all identical variables about the 'self' and 'other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Finally,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results of IAT and the report concerning 'others' on voluptuous sex and sociosexuality were obtained. These results implied that social desirability influences people's responses on variables related to sexual attitudes. Thus, our study suggests self-report studies on sensitive subjects like sexual attitude warrant special caution in the interpretation of their results.

Key words : *Self-Report, Social desirability, Response bias, Sociosexuality, Implicit Association Test*